

2017년 5월 22일, 조천읍 함덕리 함덕3구경로당, 강수경 조사.

제보자1: 양정렬(여, 1933년생, 조천읍 함덕리)

제보자2: 김복덕(여, 1936년생, 조천읍 함덕리)

- 줄거리: 아주머니가 조밭에서 김을 매고 있는데 문씨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뒤를 가리키며 말을 걸었다. 무슨 일인지 돌아보니 소나무가 껍질이 벗겨져서 하얀 속살이 보였다.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놀랐다. 옛날에는 나무에 매달려서 사람이 죽으면, 그 나무의 껍질을 벗겨다가 달여 먹으면 간질병에 좋다고 하였다. 놀란 아주머니는 그 뒤로 몸이 아프기 시작하여 심방을 빌어다가 굿을 하여 나았다.

[제보자2] 사름, 사름 우리 밧디 강 야게 돌아전 죽엇주게. 그때도 또 놀래언에 또 심방 빌어단 무신, 굿헛수게.

[제보자1] 그 저 누게.

[제보자2] 그 ○○이 아덜게.

[제보자1] 아이고, 맞다게.

[제보자2] 우리 밧디 간. 아이고 경 헤네. 아니 경 헌 줄도 몰라네. 조팏 검질 메단 보난, 이제 그 문칩이 하르방 글로 넘어가단에.

“아, 이 아지망 이거 봤어?”

영 허멍.

“무스거마썸?”

헨, 뒤터레 영 돌아사멍 우터레 바려보난 소남야 오꼳 벳겨가 불언게. 벳겨가 난 낭이 헤영허지 안헛니까? 아이 경 허난 그것에 그냥 놀랜양.

[제보자1] 맞다게. 저 목 돌아져낭 죽어나문이, 그 낭 거풀이 약 텨덴 헨이.

[조사자] 아, 기파?

[제보자1] 저 주변에 사름이 막 벳겨가 분덴.

[제보자2] 그건 무시거나 허민이, 저 요새게 사람덜 무신거 허민 그냥 꼼빱 죽엇당 살아 나지 안허여게. 거 무시거, 무시것과?

[제보자1] 뇌졸중.

[제보자2] 아니, 아니 뇌졸중이 아니고. 거 무신 병이우과? 간절병, 간절병.

[제보자1] 응, 간절병.

[제보자2] 간절병 허는 사름이 그 약을 그거 해당 먹으면은 딸령 먹으면은 존덴. 경 행 벳겨 가분 거.

[조사자] 아, 경 험니까?

[제보자2] 응. 경 행 벳겨 가부난 그냥 놀래연 막 그냥 검질 메당 놀래연 그냥 집이 와난, 그냥 복삭 아판. 심방 빌어단 빌영 막 호끔 베롱헛주게. 우리가 직성이 약허주게.

[제보자1] 직성 약헌 사름이 걸리메, 옛날도.

[제보자2] 약헌 사름이 걸려.

[조사자] 거문 그거 뵙 놀렌 아프문 그냥 어디 특별히 아픈 디 없이 그냥 힘이 없이 흐물흐물?

[제보자2] 아니, 힘이 엇고 식은땀이 팡팡 나. 나근나근 허면서 막 피곤허여.

- 핵심어 : 허연 소낭, 낭, 낭 껍질, 간절병, 굿, 조팏 검질, 간질